KB증권

FIRST TO THE MARKET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5년 6월 30일

미국주식 시황 Analyst 안소은
se.ahn@kbfg.com

US Market Pulse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에 증시 상승세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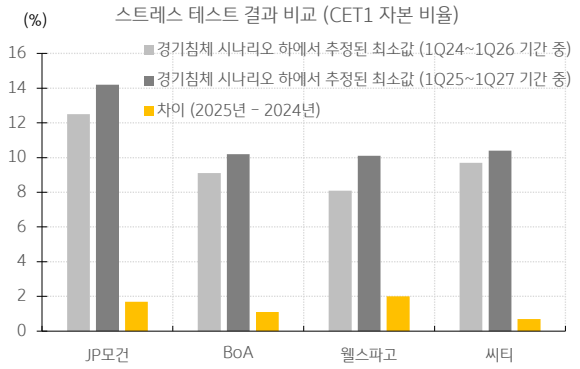
무역 관련 기대감에 증시 상승, S&P 500 신고점 경신

- 무역협상 진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 지난주 금요일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신고점 경신.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반영. 목요일 백악관에서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금요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구체적으로 노동절 (9월 2일)까지 주요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음. 미중 양국은 6월초 런던에서 도출한 무역협상의 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공식화. 이에 따라 중국 측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적격 신청을 승인하고, 미국 측은 중국에 취했던 여러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임. 그밖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7월 9일 전까지 10건의 추가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준비가 됐다고 언급
-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 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종료하겠다고 언급하며, 금요일 장 중 증시 변동성을 키움. 금요일 오전 캐나다 재무부가 7월 1일에 디지털세의 첫 납부가 예정돼 있다고 발표한 데 대응한 것. 베센트 재무장관은 캐나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함. 디지털세는 캐나다에서 이미 1년 전에 법으로 제정됐으며, 최근 미국 정부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2천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수익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원활한 무역협상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 디지털세 철회를 요구하는 분위기. 일례로 캐나다 비즈니스 협회는 캐나다의 디지털세 철폐와 미국의 관세 폐지를 맞바꾸는 제안을 해야한다고 언급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주주환원 기대 높아진 은행주, 정부 부문 수요 둔화 우려에 팔란티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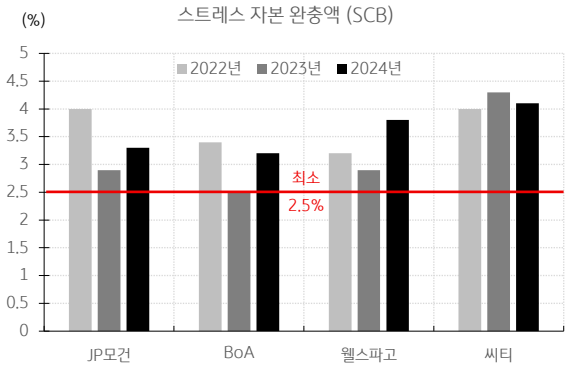
- 은행주: 최근 상대 고성과 흐름을 보였던 은행 산업그룹은 금요일 0.4% 하락. 은행 산업그룹 내 전 종목이 5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등 단기 과열 부담에 은행주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본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 금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올해 테스트를 받은 22개 은행 모두 경기침체 시나리오 하에서 최소 자본 기준 (최소 CET1 자본 비율 4.5%)을 충족. 대부분 은행의 경기침체 시나리오 하에서 CET1 자본 비율 최저값 추정치가 2024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비해 개선.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스트레스 자본 완충액 (최소 2.5%)을 부과.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작년에 비해 개선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본 완충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그만큼 은행들의 주주환원 여력이 늘어날 것.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주요 은행들이 곧 자사주매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은행주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음
- 팔란티어 (PLTR): 금요일 9.4% 하락. 민간 사업 부문에서 원전 사업 확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 부문에서 여러 우려가 반영되며 주가 하락. ① 팔란티어는 원전 전문 건설업체 'The Nuclear Company'와 전략적 제품 파트너십을 체결해 'NOS (Nuclear Operating System)'라는 AI 기반 원자력 산업 전용 실시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 및 배포할 예정. 원자력 산업 전용으로 설계된 첫 번째 AI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향후 원자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 ② 그러나 국방부의 2026회계연도 예산 감소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군사 정보 분석 수요 둔화 우려에 주가 하락. 국방부는 2026회계연도에 대한 공식 예산을 9,616억 달러로 요청. 이 중 약 1,133억 달러는 조정 (reconciliation) 법안이 통과돼야 확보 가능해, 지난 회계연도 (약 8,480억 달러) 대비 국방 예산 증가폭은 미미. 다만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 중 F-35 전투기·M10 부커 전차 등 일부 무기 사업은 축소됐지만, 소프트웨어 예산은 줄지 않았음. AI 및 무인 시스템 관련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 항목으로 분리되는 등 오히려 중요성이 부각됨

그림 1. 주요 은행의 2025년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료: Factset, FRB, KB증권

그림 2. 주요 은행의 스트레스 자본 완충액 축소 가능성



자료: Factset, KB증권

표 1.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상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NKE	나이키	85	경기소비	15.2	20.5	9.5
2	BA	보잉	162	산업	5.9	7.9	19.8
3	FDX	페덱스	55	산업	3.5	1.3	-6.2
4	GOOGL	알파벳 A	1,039	커뮤니케이션	2.9	7.1	10.0
5	AMZN	아마존닷컴	2,371	경기소비	2.8	6.5	10.9
6	GILD	길리어드 사이언스	138	헬스케어	2.8	2.0	-0.4
7	GOOG	알파벳 C	973	커뮤니케이션	2.2	6.3	8.6
8	PEP	펩시코	180	필수소비	2.2	1.5	-12.4
9	UNH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280	헬스케어	2.1	2.4	-40.1
10	MCD	맥도날드	208	경기소비	2.1	1.4	-6.8

자료: Factset, KB증권

표 2.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하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PLTR	팔란티어	296	IT	-9.4	-4.8	45.1
2	LLY	일라이 릴리	735	헬스케어	-2.5	1.7	-5.6
3	ABBV	애브비	322	헬스케어	-2.4	-1.6	-10.1
4	DHR	다나허	142	헬스케어	-1.3	1.2	-5.4
5	ORCL	오라클	591	IT	-1.2	2.5	44.2
6	TMO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154	헬스케어	-0.9	2.6	-20.2
7	COP	코노코필립스	114	에너지	-0.8	-4.8	-12.3
8	IBM	IBM	269	IT	-0.8	3.1	17.7
9	BAC	뱅크오브아메리카	355	금융	-0.7	3.6	10.7
10	AMGN	암젠	149	헬스케어	-0.7	-4.2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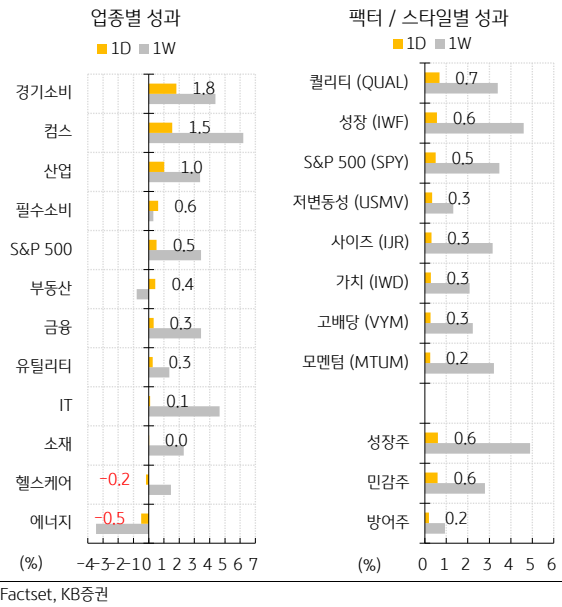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표 3. S&P 100 시가총액 상위 20위 성과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NVDA	엔비디아	3,849	IT	1.8	9.7	41.6
2	MSFT	마이크로소프트	3,686	IT	-0.3	3.9	27.0
3	AAPL	애플	3,003	IT	0.0	0.0	-10.2
4	AMZN	아마존닷컴	2,371	경기소비	2.8	6.5	10.9
5	META	메타 플랫폼스	1,593	커뮤니케이션	1.0	7.5	21.7
6	AVGO	브로드컴	1,267	IT	-0.3	7.7	56.6
7	TSLA	테슬라	1,041	경기소비	-0.7	0.5	18.5
8	GOOGL	알파벳 A	1,039	커뮤니케이션	2.9	7.1	10.0
9	GOOG	알파벳 C	973	커뮤니케이션	2.2	6.3	8.6
10	JPM	제이피모간체이스	798	금융	-0.6	4.4	15.7
11	WMT	월마트	776	필수소비	1.3	1.2	13.6
12	LLY	일라이 릴리	735	헬스케어	-2.5	1.7	-5.6
13	BRK.B	버크셔 해서웨이	652	금융	0.1	0.2	-9.1
14	V	비자	596	금융	0.7	3.0	-0.4
15	ORCL	오라클	591	IT	-1.2	2.5	44.2
16	NFLX	넷플릭스	563	커뮤니케이션	1.3	7.4	35.5
17	MA	마스터카드	496	금융	0.8	3.3	-1.3
18	XOM	엑슨 모빌	471	에너지	-0.6	-4.6	-7.2
19	COST	코스트코 홀세일	437	필수소비	0.2	0.5	4.9
20	PG	프록터 & 갬블	375	필수소비	0.8	0.5	-5.2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3. S&P 500 업종 / 팩터 / 스타일별 성과



자료: Factset,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